

파월 발언 이후 가치주 상승 전환 파월, '유연한 형태'의 평균 인플레이션 정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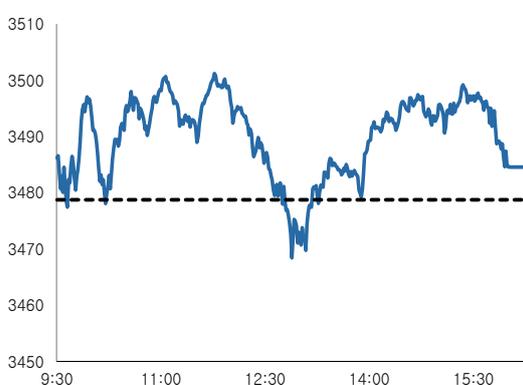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매물 소화 속 가치주 강세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유연한 형태의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발표에 힘입어 상승. 그러나 관련 내용은 이미 반영 되었고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점을 감안 차익 매물 출회되며 나스닥은 하락 전환. 한편, 에보트(+7.85%)의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으로 항공,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고, 파월 발언 후 하락하던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하자 금융주 위주로 강세폭 확대하며 다우는 상승(다우 +0.57%, 나스닥 -0.34%, S&P500 +0.17%, 러셀 2000 +0.28%)

미 증시는 파월 의장 발언과 에보트의 진단키트, 개별 기업 이슈에 의해 변화.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유연한 형태의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정책을 발표. 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를 넘어서도 '일정기간'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 특히 "인플레이션이 과열 될 경우에는 주저없이 대응을 할 것" 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비록 평균인플레이션을 도입했지만, 전제 조건으로 완만하게 오를 경우에 한해서 금리 인상을 미루겠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는 2.25~2.50% 정도라고 주장. 한편,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국채금리는 잠시 하락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승전환 후 그 폭을 확대 했으며, 달러화도 발언 직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곧바로 강세 전환. 이 영향으로 기술주는 상승 출발 후 하락 전환 했으며 금융주는 하락 출발후 상승 전환

한편, 의료가기 회사인 에보트(+7.85%)는 미 정부가 코로나 진단키트 1억 5천만개 이상을 구매 발표 후 급등. 특히 에보트 진단키트의 경우 15 분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항공 여행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임. 이런 가운데 월마트(+4.54%)가 MS(+2.46%)와 함께 다음 주 틱톡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한 점도 미 증시 강세 요인. 결국 미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에보트 코로나 진단 키트 효과로 항공, 여행,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한 반면 기술주는 차익 매물로 하락한 점이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44.45	-1.05	홍콩항셱	25,281.15	-0.83
KOSDAQ		836.40	-0.59	영국	5,999.99	-0.75
DOW		28,492.27	+0.57	독일	13,096.36	-0.71
NASDAQ		11,625.34	-0.34	프랑스	5,015.97	-0.64
S&P 500		3,484.55	+0.17	스페인	7,090.70	-0.45
상하이종합		3,350.11	+0.61	그리스	633.09	-0.43
일본		23,208.86	-0.35	이탈리아	19,847.38	-1.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강세

에보트(+7.85%)는 미 정부가 대 규모 진단키트 구입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15분 이내에 그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 이동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부킹닷컴(+1.42%), 익스피디아(+2.76%) 등 여행주, 카니발(+5.50%), 로얄크루즈(+5.98%) 등 크루즈 업종, MGM(+3.73%), 윈 리조트(+2.03%) 등 리조트, 메리어트(+4.53%) 등 호텔, 델타항공(+2.90%), 사우스 웨스트 항공(+3.49%), 보잉(+1.34%) 등 항공주 등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메트로닉(+2.67%), 스트라이커(+3.80%) 등 의료 기기 업종도 에보트 효과로 강세를 보였다.

한편, JP모건(+3.29%), 웰스파고(+2.29%), 키코프(+3.34%), BOK파이낸셜(+1.49%) 등 은행주는 파월 의장의 전제 조건 있는 평균인플레이션 타겟 정책 발표로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강세를 보였다. 월마트(+4.54%)는 MS(+2.46%)와 더불어 틱톡 인수를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뉴스 보도로 급등했다. 반면, 애플(-1.20%), 페이스북(-3.52%), 넷플릭스(-3.88%), 아마존(-1.22%)은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넷앱(+4.03%)은 신규 고객증 절반이 클라우드에 기반해 유입되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3.97%)는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1%	대형 가치주 ETF(IVE)	+0.75%
에너지섹터 ETF(OIH)	+0.79%	중형 가치주 ETF(IWS)	+0.62%
소매업체 ETF(XRT)	-0.72%	소형 가치주 ETF(IWN)	+0.83%
금융섹터 ETF(XLF)	+1.69%	대형 성장주 ETF(VUG)	-0.20%
기술섹터 ETF(XLK)	+0.08%	중형 성장주 ETF(IWP)	-0.3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3%	소형 성장주 ETF(IWO)	-0.10%
인터넷업체 ETF(FDN)	-0.70%	배당주 ETF(DVY)	+0.75%
리츠업체 ETF(XLRE)	+1.3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5%
주택건설업체 ETF(XHB)	-1.2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1%
바이오섹터 ETF(IBB)	-0.11%	미국 국채 ETF(IEF)	-0.35%
헬스케어 ETF(XLV)	+0.79%	하이일드 ETF(JNK)	-0.13%
곡물 ETF(DBA)	+1.25%	물가연동채 ETF(TIP)	-0.40%
반도체 ETF(SMH)	-1.40%	Long/short ETF(BTAL)	-0.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67.52	+0.25%	-1.34%	-2.36%
소재	397.28	-0.24%	+1.59%	+4.73%
산업재	658.00	+0.33%	+2.38%	+8.16%
경기소비재	1,245.67	-0.72%	+2.91%	+10.10%
필수소비재	667.47	+0.61%	+1.70%	+3.82%
헬스케어	1,253.32	+0.78%	+0.91%	+1.45%
금융	418.84	+1.74%	+3.61%	+4.97%
IT	2,143.83	+0.03%	+4.76%	+13.13%
커뮤니케이션	209.23	-1.29%	+4.06%	+9.99%
유틸리티	297.71	+0.30%	-0.78%	-3.50%
부동산	224.86	+1.37%	+1.42%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소외 업종에 대한 기대 확산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6%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84%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7.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이 전제 조건이 있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정책을 발표해 장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했으나 변화가 제한 되었다. 특히 시장은 이미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 새로운 이슈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 영향이 제한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주간 신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100 만건을 상회하는 등 미국의 고용불안은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양당의 전당대회로 미뤄지고 있어 부담이다. 이는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회복 속도 둔화를 이야기 하고 있어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결국 중요한 이벤트 였던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마감 되었기에 전반적인 시장은 미 증시와 같이 종목별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또한 부담이다. 그렇지만 연준의 저금리 기조 유지는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 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그동안 상승에서 소외 받았던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불안 지속

미국 2 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는 전분기 대비 31.7% 둔화로 지난 잠정치(QOQ -32.9%) 보다 개선되었다. 최종판매가 -29.36%에서 -28.5%로 상향되었고 재고효과도 -4.0%p 에서 -3.5%p 로 개선되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110.4 만건) 보다는 개선된 100.6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98.7 만건) 보다는 증가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100 만건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고용불안이 지속됨을 보여줬다. 4 주 평균은 106.8 만건으로 지난주 117.5 만건을 하회했다.

7 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5.9% 증가해 지난달 발표(15.8%) 보다는 부진했으나 예상(mom +1.5%)보다는 양호했다. 8 월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는 전월(3)은 물론 예상(2)을 크게 상회한 14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 전환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영향이 완화되자 달러 강세 여파 등으로 장 중 한 때 2% 넘게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에보트의 신속한 결과를 내놓는 코로나 진단 키트 효과로 항공 운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0.81% 하락 마감 했다.

달러화는 연준이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정책을 발표하자 한때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는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즉각적으로 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로 전환했다.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의장의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정책 발표로 한때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정기간'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에 한해 금리 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연준의 저금리 기조 유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감안 단기물은 보험권에 그치는 등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1.02%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혼조 마감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8% 철근은 0.34%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3.04	-0.81	+0.51	Dollar Index	93.008	+0.00	+0.23
브렌트유	45.09	-1.21	+0.42	EUR/USD	1.1822	-0.07	-0.32
금	1,932.60	-1.02	-0.71	USD/JPY	106.58	+0.56	+0.74
은	27.198	-1.47	-0.38	GBP/USD	1.3205	-0.04	-0.07
알루미늄	1,781.00	+0.06	-0.47	USD/CHF	0.909	+0.08	+0.14
전기동	6,621.00	+0.41	+0.30	AUD/USD	0.7258	+0.35	+0.92
아연	2,485.50	+0.75	-0.14	USD/CAD	1.3124	-0.14	-0.47
옥수수	358.50	+1.20	+5.67	USD/BRL	5.5616	-0.87	+0.04
밀	550.75	+2.04	+4.21	USD/CNH	6.8873	+0.10	-0.29
대두	942.00	+1.92	+4.06	USD/KRW	1185.00	-0.15	-0.16
커피	122.35	+0.20	+2.86	USD/KRW NDF1M	1187.56	+0.22	+0.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49	+6.05	+9.80	스페인	0.385	+1.20	+9.70
한국	1.423	+1.80	+4.30	포르투갈	0.402	+1.40	+8.00
일본	0.043	-0.30	+0.70	그리스	1.093	-0.20	+0.70
독일	-0.407	+0.80	+8.90	이탈리아	1.018	+0.30	+10.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